Tabula Rasa

- □□

정보

Tabula Rasa

개요
곡명: Tabula Rasa (두 독주 바이올린과 현악 오케스트라 , 준비 피아노를 위한 더블 콘체르토)
작곡가: Arvo Pärt (1935–)
작곡 시기: 1977년
초연: 1977년 9월 30일, Tallinn Polytechnic Institute Assembly Hall(탈린 공과대학 집회장). Gidon Kremer와 Tatjana Grindenko 독주, Helju Tauk 준비 피아노, 에스토니아 국립 학술극장 실내 오케스트라 , Eri Klas 지휘
헌정: Eri Klas, Gidon Kremer, Tatjana Grindenko
구성: I. Ludus(con moto), II. Silentium(senza moto)
출판: Universal Edition 연구용 총보 UE31937
소요 시간: 약 27분 (ECM 1275 수록 트랙 합계 26분 25초, Apple Music Classical 표기 26분 26초)

1977년에 완성된 Tabula Rasa는 두 독주 바이올린, 현악 오케스트라 , 준비 피아노를 결합한 더블 콘체르토다 . Pärt는 이 편성에서 독주자와 합주가 경쟁하는 전통적인 협주곡의 외형보다, 제한된 음 재료가 음역과 시간의 밀도를 바꾸며 하나의 긴 형식을 만드는 방식을 택한다. Ludus의 운동성과 Silentium의 느린 소멸은 같은 작곡 언어가 서로 다른 속도로 펼쳐지는 두 면이다.

작품의 제목인 Tabula Rasa는 ‘지워진 서판 ’ 또는 ‘백지 ’를 뜻한다. 이는 기존 작곡 언어를 비우고 새로운 규칙을 세우던 Pärt의 1970년대 중반 전환과 맞닿아 있다. 음계적으로 움직이는 선율선과 삼화음의 음을 고르는 선율이 함께 울리는 틴티나불리 (tintinnabuli) 방식은 두 독주 바이올린과 현악의 투명한 층,
금속성으로 변형된 피아노 음색을 아울러 대규모 형식을 이룬다.

출판 정보와 판본

1977년 원판은 두 독주 바이올린을 사용한다. Pärt는 1981년에 Gidon Kremer의 요청으로 두 번째 독주자를 비올라로 바꾼 별도 판본을 만들었고, 이 판본은 1982년 1월 20일 뉴욕 Lincoln Center Avery Fisher Hall 에서 Kremer, Kim Kashkashian, English Chamber Orchestra, Anthony Halstead의 연주로 초연되었다 . 바이올린 ·비올라판은 원판을 폐기한 개정판이 아니라, 독주 음역과 색채를 달리하는 승인된 대안이다.

Universal Edition의 연구용 총보 UE31937은 원판을 for 2 violins, string orchestra and prepared piano 로 제시한다. 출판사의 준비 지시는 피아노 현과 댐퍼 뒤에 지름 5 또는 6mm 금속 나사를 넣는

방식이며, 관련 연주 자료는 펠트 쐐기와 큰 콘서트 그랜드, 증폭을 함께 권한다. 이 물리적 준비는 새로운 작곡 연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작품에 지정된 음향 장치다.

작곡 배경과 헌정

Pärt는 1970년대 중반 초기의 연속음악적 실험에서 벗어나 음계와 삼화음의 관계를 다시 세우는 틴티나불리 방식으로 옮겨 갔다. Tabula Rasa는 그 방식이 짧은 독주곡의 규모를 넘어 두 독주자와 현악 오케스트라의 긴 시간으로 확장된 초기의 중요한 사례다. 르네상스 음악과 동방정교회 전례의 영향은 특정 선율을 인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제한된 재료와 울림을 다루는 감각으로 나타난다.

초연의 의뢰 경위에 관한 서술은 자료마다 강조점이 다르다. Los Angeles Philharmonic과 Arvo Pärt Centre 의 일부 기록은 Kremer의 제안을 앞세우고, Boston Symphony Orchestra와 Pärt Centre의 다른 글은 Eri Klas가 Alfred Schnittke의 Concerto Grosso No. 1과 짝을 이룰 작품을 요청한 맥락을 강조한다. 공통으로 확인되는 사실은 Kremer, Grindenko, Klas가 참여한 탈린 초연과 Schnittke의 작품을 함께 배치한
프로그램이다 . 따라서 의뢰자를 한 사람으로 단정하기보다 , 바이올리니스트의 제안과 지휘자의 프로그램
구상이 만난 맥락으로 기술하는 편이 정확하다.

Pärt는 작품을 Eri Klas, Gidon Kremer, Tatjana Grindenko에게 헌정했다. 세 사람의 이름은 작곡 ·초연 · 수용의 맥락을 한데 묶지만, 초연의 준비 피아노 담당자는 출처에 따라 다르게 기록된다. Arvo Pärt Centre의 상세 작품 페이지는 Helju Tauk을 명시하고, IRCAM의 요약 메타데이터에는 Alfred Schnittke가 포함된다. 이 차이는 1984년 ECM 녹음에서 Schnittke가 준비 피아노를 맡았다는 사실과도 구분해야 한다.

두 악장의 구성

두 악장은 빠르기만 다른 대조가 아니다. Ludus는 같은 재료를 변주하며 활동성을 넓히고, Silentium은 서로 다른 속도의 성부를 겹쳐 소리가 사라지는 쪽으로 시간을 늘인다.

I. Ludus: 놀이

Ludus 는 라틴어로 ‘놀이 ’를 뜻하며 con moto 로 지시된다. A단조를 중심으로 두 독주 바이올린이 A음을 다섯 옥타브 간격으로 열고, 짧은 정적 뒤에 현악의 층이 응답한다. 이 넓은 간격은 독주자를 과시하기 위한 신호라기보다 , 이후 음역이 좁혀지고 다시 벌어지는 운동의 출발점이다 .

Pärt Centre가 말하는 여덟 개 변주는 새 주제를 차례로 내놓는 형식이 아니다. 같은 선율선과 삼화음의
관계가 독주자와 현악의 주고받음, 성부 수, 음역, 리듬 활동을 바꾸며 다른 표정을 얻는다. 능동적인 에피소드 사이에는 한 독주 바이올린과 준비 피아노만 남는 얇은 순간이 놓이고, 피아노의 나사로 변형된 타격음이
종이나 징을 연상시키는 금속성 색채를 보탠다.

변주가 진행될수록 활동성은 음역과 리듬의 확장으로 커진다. 현악과 두 독주자의 선이 한꺼번에 밀집하는
절정 뒤에는 강한 카덴차가 놓여, 앞에서 축적된 운동을 꺾고 다음 악장의 정적인 시간으로 넘어갈 길을 연다. 정확한 변주별 마디 수보다, 단순한 재료가 반복 속에서 밀도와 에너지를 바꾸는 과정이 이 악장의 형식을 결정한다.

II. Silentium: 침묵

Silentium 은 라틴어로 ‘침묵 ’을 뜻하며 senza moto 로 지시된다. D단조를 중심으로 한 이 느린 악장은
프롤라치오 카논 (prolation canon), 곧 같은 선율 재료가 성부마다 다른 속도로 확대 ·축소되는 구조를 취한다. 가장 빠른 움직임은 낮은 현악에, 가장 느린 층은 첫 독주 바이올린에 놓여 두 극 사이에 긴 호흡이 생긴다.

이 카논에서 ‘침묵 ’은 움직임의 부재가 아니다. 첼로가 음계를 위아래로 넓히고 제 1바이올린이 다른 속도로 뒤따르며, 성부 사이의 시간 간격이 음향의 폭을 만든다. 준비 피아노는 Ludus의 절정을 반복하지 않고, 긴 현악의 흐름 안에 불규칙한 아르페지오와 낯선 배음을 삽입한다.

악장이 끝날수록 음향의 호와 맥박은 가늘어지고 잔향이 길어진다. 마지막은 갑작스러운 무음으로 잘리는 종결이라기보다 , 카논의 층과 현악의 울림이 서서히 소멸해 침묵에 닿는 종결이다. 제목은 이 소멸을 음악 바깥의 공백이 아니라 형식의 마지막 재료로 만든다.

틴티나불리의 작동 방식

틴티나불리의 두 기본 성부는 역할이 분명하다. 하나의 선율선은 제한된 음계 안에서 움직여 시간의 방향을 만들고, 다른 성부는 중심 삼화음의 음을 골라 종소리 같은 안정점을 만든다. Tabula Rasa에서 이 관계는 두 독주 바이올린과 현악 오케스트라의 층으로 확대되며, 일정한 박동 안에서 음역 ·성부 수 ·다이내믹이 바뀌어 긴장을 만든다. 그러므로 작품을 ‘화성이 전혀 변하지 않는 미니멀리즘 ’으로 축약하기보다 , 제한된 음 재료와 시간의 비율을 조직하는 틴티나불리 작품으로 설명하는 편이 맞다.

편성

1977년 원판의 기본 편성은 다음과 같다.

독주 바이올린 2
현악 오케스트라 (제 1·제 2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더블베이스)
준비 피아노

목관 ·금관 ·일반 타악 ·성악은 쓰이지 않는다. 대신 준비 피아노가 현악군 사이에 비정상적인 배음과 타격을 끼워 넣어, 현악의 긴 잔향과 다른 시간 감각을 만든다. 출판사 지시대로 현과 댐퍼 뒤에 5 또는 6mm 금속 나사를 넣고 필요하면 펠트로 현을 분리하며, 큰 콘서트 그랜드를 사용하고 가능하면 증폭한다. 나사 위치와 홀의 울림은 연주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특정 준비 상태를 모든 공연의 표준으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1981년 승인 판본에서는 두 번째 독주 바이올린이 비올라로 바뀐다. 두 악장과 기본적인 음향 절차는
유지되지만 , 중저음 독주자의 음역이 달라져 원판과 다른 음역 혼합과 대비가 생긴다.

소요 시간

Arvo Pärt Centre는 작품 전체를 약 27분으로 제시한다. 1984년 ECM 1275의 트랙은 Ludus 9분 36초, Silentium 16분 49초로 단순 합산 26분 25초이며, Apple Music Classical은 둘째 악장을 16분 50초로 표기해 전체 26분 26초로 계산한다. 이 몇 초의 차이는 음반의 트랙 분할과 반올림 ·마스터링 차이로 볼 수 있으며, 개정판에서 악절이 삭제되었다는 뜻은 아니다. 지휘자의 템포, 악장 사이의 호흡, 준비 피아노의

잔향에 따라 실제 공연 시간은 조금 달라질 수 있다.

공연과 레코딩

1977년 9월 30일 탈린 공과대학 집회장에서 Gidon Kremer와 Tatjana Grindenko가 독주하고, Helju Tauk 이 준비 피아노를 맡았으며, 에스토니아 국립 학술극장 실내 오케스트라를 Eri Klas가 지휘했다는 명단이 Arvo Pärt Centre의 상세 기록에 남아 있다. IRCAM의 요약 메타데이터는 준비 피아노를 Alfred Schnittke로 적으므로, 두 기록은 담당자 표기를 구분해 읽어야 한다.

1984년 9월 1일 발매된 ECM New Series 첫 음반 ECM 1275에는 Tabula Rasa의 1977년 공연 녹음이
수록되었다 . 이 트랙의 연주자는 Kremer와 Grindenko, 준비 피아노 Alfred Schnittke, Lithuanian Chamber Orchestra, Saulius Sondeckis다. 같은 음반에 참여한 Keith Jarrett는 Fratres의 피아노를
맡았으므로 Tabula Rasa의 피아니스트가 아니다. 이 음반은 작품의 탈린 공연을 서구권에 널리 알린 중요한 수용 경로다. 앨범 전체의 녹음 시기는 1977~1984년으로 제시되지만 , Tabula Rasa 트랙은 1977년 공연 녹음이다.

후대 공연에서는 작품 전체와 개별 악장이 서로 다른 프로그램으로 다뤄지기도 했다. 예를 들어 Los Angeles Philharmonic의 1991년 5월 12일 첫 연주는 Ludus만을 포함했다. 이는 두 악장 전체의 초연이나 별도
판본을 뜻하지 않으며, 작품이 프로그램에 들어오는 방식의 한 사례다.

주요 자료

Arvo Pärt Centre: 1977년 원판: 작곡 연도, 초연 일시 ·장소 ·헌정, 편성, 악장 구조, 연주 시간

Arvo Pärt Centre: 1981년 바이올린 ·비올라판: 별도 판본과 1982년 뉴욕 초연

Universal Edition: Tabula rasa: 연구용 총보 UE31937, 편성, 준비 피아노 지시

Boston Symphony Orchestra: Tabula Rasa: 틴티나불리 , 악장별 음향 구조, 준비 피아노의 역할

IRCAM: Tabula Rasa: 독립적인 작품 ·초연 메타데이터

ECM Records: ECM 1275: 1984년 음반 발매, 1977년 공연 트랙, 연주자 역할과 트랙 시간

Apple Music Classical 카탈로그: 악장별 음반 시간과 26분 26초 표기

Los Angeles Philharmonic: Tabula Rasa: 1991년 공연 기록과 Kremer의 의뢰 맥락